

## 어리버리 두 할매의 세계 마실 이야기

<2023년 가을, 김봉순>

거기를 왜 갔더라?

그냥, 이라고 말하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다. 일단 가성비를 따졌다. 아니 그 말도 설득력이 약하다. 사실 꼭 어떤 목적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니...,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는 세상의 낯선 공기가 가끔 그립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문화 등이 늘 궁금하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에서 벗어나 깊고 넓은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고 싶은 소망 또한 나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이처럼 넓어 이웃 나라를 마치 가까운 동네 마실 가듯, 아무 제재 없이 건너는 국경선의 자비가 너그럽고, 거기에 워낙 좋아하는 치즈가 사방에 널린 유럽을, 나는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왕 간 김에 여러 나라, 많은 도시들을 살펴보고 싶은 건 여행자로서 어찌면 당연한 이치, 나는 그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다.

나아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쪽으로 미뤄뒀던 여행 일지를, 서술적으로 자세히 풀어 다시 쓰는 이유? 나만의 기록이자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행여 훗날 이곳으로 떠나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여행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 여행가이드 북과 실제 골목을 헤매며 다닌 경험자의 차이를 그댄 알고 있으리니!

오래전 발트 3국에 갈 때 일이다. 당시에 해도 발칸을 다녀온 후기들은 넘치는데, 발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했다.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참조해 정보를 얻으려 많은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런데 거의 다 거기서 뭘 먹었으며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소위 자기 자랑만(?) 난무할 뿐, 자유여행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다녀왔다는, 모스크바에서 사는 어느 교포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서론이 길었다.

장장 열네 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내린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의 휘황찬란한 밤이, 우릴 맞았다. 키다리(네덜란드 남자 평균신장이 183센티)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로비에, 동양에서 날아온 아담한 우리 둘만 덩그러니 서 있자니, 마치 먼 나라로 유기된 노인들 같다.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본 다음, 모두도 당당하게 안내데스크를 향해 두벅이처럼 걸어갔다!

호텔바우처를 보여주며 가는 길을 묻고, 그곳 셔틀버스 정류장도 물었으나~~!

건장하고 뚱뚱한데다 검은 구레나룻이 엄청난, 너무도 친절하 그 남자가 호텔로 전화를 하더니만, **노 셔틀버스, 오후리 택쉬!** 라고 우리를 보며 짧게 말한다. 여러 번의 질문에도 같은 대답이다. 그러잖아도 밖에만 나가면 부끄럼타는 내 영어가 그때부터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제기랄…!

예약 당시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엔 분명 나왔던데… 시간은 시나브로 흘렀다. 낮선 외국에서 밤은 점점 깊어가고, 늙은 동양 여성 둘이서 예약한 호텔을 찾아가야만 했다. 공항 근처 호텔임에도 밤이라서 그런지 길은 온통 어둡고 멀기만 하다. 거기에 네덜란드의 비싼 택시비라니….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로 ‘낮은 땅,’이라는 뜻이다. 전 국토의 1/4이 바다보다 낮다. 그래서 낮은 지대를 간척하여 만든 땅이 많은데 간척시 배수를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풍차다. 그런 이유로 풍차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인데 - 산업혁명 이후 풍차는 이제 보기 어렵다. 그나마 몇 개 있는 건 실용성에 바탕을 뒀다기보다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한국 관광객이 유럽을 방문할 때 네덜란드를 빼고 다니는 경우 종종 있는데 - 물론 나도 예외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 진짜 보석같은 나라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일단 사람들이 한마디로 나이스하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어디를 가도 한결같다!

이튿날 아침, 묵었던 호텔 근처 즈와넨버그 역에서 우린 희한한 일을 겪었다. 그 기차역에서 암스테르담 중앙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도통 차표를 구입할 수 없었다. 카드도 현금도 다 거부하는 기계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출근하는 듯한 여성을 발견, 도움을 청했다. 그녀의 친절함은 가히 노벨상감이다. 우리는 그녀를 ‘나의 천사(You are my angel)’, 라고 불렀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네덜란드 사람들의 친절함은, 내 일찍이 접해본 적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암스테르담, 중앙역>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서울역의 모델이 된 곳으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빨간 벽돌 건물이다. 건축가 카위퍼르스와 판헨트가 설계하여 1889년 완성한 건물로 시내 교통의 거점이기도 하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길을 묻다>

열차 외에도 버스나 지하철 트램은 물론이고 역 건너편에 페리 선착장도 있다. 그곳에서 운하 체험도 가능하다. 우린 트램을 타고 미리 예약해 둔, 고흐 뮤지엄을 찾아갔다. 근처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있다.